

6월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41.49 (-7.91)	870.67 (+4.3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325 (-0.024)	1334.50 (0.00)

# metro® 경제



## D램 시장 '봄바람'... 삼성·SK, 슈퍼사이클 탑승 준비

전세계 D램매출 전분기비 30% ↑ AI 상용화로 고성능 D램 수요 급증 삼성, 서버 D램 출하량 60% 증가 하이닉스 매출 20.2% 성장 달성

D램 시장 안개가 걷혔다. 시장 회복이 본격화해서다. 미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급이 많은 낸드플래시가 문제다.

### ◆ D램 한파 끝, 기술 경쟁 돌입

6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세계 D램 매출은 174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9.6%나 증가했다. 메모리 업계는 지난해 4분기 D램 사업에서 흑자 회복을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전 사업으로도 흑자를 달성하며 실적 회복을 본격화했다.

D램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다. 14나노급 DDR5를 중심으로 서버 D램 출하량이 60% 증가하는 등 매출이 79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점유율이 무려 45.5%로 전분기(38.9%) 대비 6.6% 포인트가 급증했다.

SK하이닉스는 출하량만 보면 증가율이 미미했지만 평균판매가격(ASP)을 19%까지 늘리며 매출 20.2% 성장을 달성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HBM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결과를 풀이된다.

다만 점유율은 오히려 2.5% 포인트 떨어진 31.8%에 머물렀다. 마이크론

역시 전분기보다 매출이 8.9% 늘었지만 점유율은 3.6% 포인트나 적은 19.2%였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 비수기 영향으로 D램 출하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고정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하며 수익성을 더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D램 수요가 다시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D램 가격은 이미 6개월 가량 상승세를 지속 중, 재고 수준도 구형을 제외하고는 정상 수준이거나 공급 부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산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메모리 업계는 올 초만 해도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장비 반입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D램 수요 증가에 가장 큰 이유는 단연 AI 서버다. 트렌드포스 뿐 아니라 메모리 업계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서버용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I가 상용화하면서 대형언어모델(LLM)을 실행하기 위한 AI 반도체와 함께 고성능 D램이 필요했던 것.

모바일 등 전방산업도 꿈틀대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4로 '온디바이스AI' 시장을 개화한 이후 모바일은 물론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PC 판매량이 급증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서울 임대료 1위, 명동 아닌 '북창동'

6일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중구 '북창동'이 임대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이었다. 북창동 1층 점포의 월 평균 통상임대료는 1㎡당 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명동 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L7면>

/뉴시스

## 장바구니 물가 비상 신선과일값 폭등에 물가 3%대 재진입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째 둔화한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면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사과와 굴 값이 전년동월대비 70% 넘게 급등하는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까지 치솟은 뒤 11월(3.3%)과 12월(3.2%), 1월(2.8%) 등 둔화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농산물이 20.9%의 오름폭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선과일(+41.2%) 가격이 폭등했다. 굴 78.1%, 사과 71.0%, 배 61.1%, 딸기 23.3% 등이다. 지난해 수해 등 여파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고,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으로 이어졌다. 채소류도 토마토(56.3%)와 파(50.1%) 가격이 크게 뛰어서 1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3.1% ↑ 굴 78%, 사과 71%, 배 61% 폭등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최상목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수준 600억 투입할 것"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사과와 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금, 신고가 행진... 비트코인, 거품우려 속 롤러코스터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 금 현물 1g 당 9만1250원 거래 비트코인 9700만원까지 치솟아

오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상화폐 1위인 비트코인도 최고치를 터치했다. 금값은 더 상승할 것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선물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하락할 것 같은 금 가격은 이날도 상승하면서 런던 시가 오후 1시 기준 0.37% 오른 2134.2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현물 금 가격도 최가를 기록했

다. 이날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g당 가격은 9만125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9만원 돌파에 성공했다.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장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전년 기록한 8만9110원이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오전에 6만8000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오후 6만921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전 사상 최고치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6만8982.20달러다.

국내 원화마켓에서도 97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과 비트코인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만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진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하지만 화폐자산의 대체재로 각광 받고 있어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값은 상승, 비트코인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이재명 "원희룡, 양평고속도로를尹 처가 땅 근처로 바꿨다" 지적 /사진 뉴시스
- ▲ 권성동, 이재명에 토론회 제안... "국민 앞에서 심판받자"

- ▲ 국민의힘, 박성중·안병길 컷오프... 김영주·박민식 공천
- ▲ 조국 "한동훈 말 만나 11개 입시비리 무혐의 입장 물어보겠다"



- ▲ 이낙연, 오는 10일 광주서 결의대회... 출마 지역구 밝힐 듯 /사진 뉴시스
- ▲ 홍영표, "추가 탈당 기대 안 해... 현역의원 4명이 힘 합칠 것"